



미 증시, 실적시즌 경계감 속 7월 FOMC 소화하며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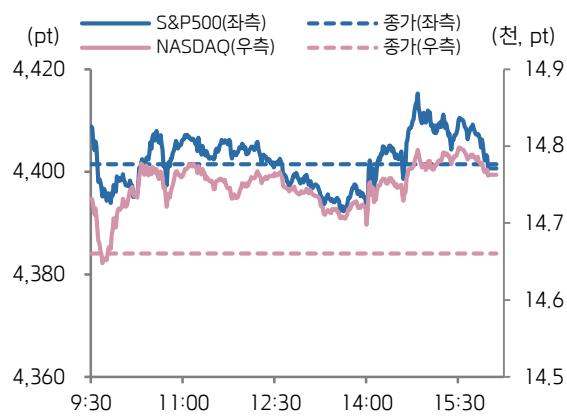
28 일(수) 미국 3 대 증시는 큰 변화가 없었던 7 월 FOMC 를 소화했으나, 애플(-1.2%), 알파벳(+3.2%), 마이크로소프트(-0.1%)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대형 테크주들간 엇갈린 주가흐름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피크아웃 경계심리가 상존한 영향으로 전반적인 지수 상승 탄력은 제한된 채로 혼조세 마감(다우 -0.36%, S&P500 -0.02%, 나스닥 +0.7%). 업종별로는 에너지(+1.0%), 커뮤니케이션(+0.8%), 헬스케어(+0.4%) 등이 강세 필수소비재(-0.9%), 유ти리티(-0.7%), 부동산(-0.6%) 등이 약세.

연준은 7 월 FOMC 를 통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2% 이상 물가달성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별도 설명을 통해서는 국채를 은행의 지급 준비금과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상설 레포창구인 스탠딩 레포(SRF)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파월의장은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 이전에 고용시장에 대해 논의할 부분들이 많다고 밝힘. 또한 델타 변이의 경제적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완화 시점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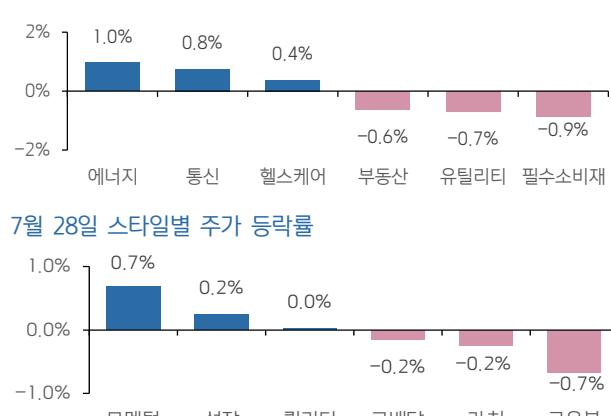
7 월 FOMC 는 6 월 FOMC 와 크게 변한 것도, 시장의 예상과 대체로 부합했던 무난한 회의였음. 델타 변이 확산에도 연준의 경기 판단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전히 파월의장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표명한 가운데, 8 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본인 스스로도 예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기존 당사의 전망대로 8 월말까지는 고 인플레이션 및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을 감내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또한 현재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 간에도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민을 해야할 부분. 과거 피크아웃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금번 2분기 실적시즌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S&P500&NASDAQ 일중 차트(7월 28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28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2.7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1.0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중국 증시 폭락세 진정에 따른 외국인 수급 호전 여부
2.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의 시간외 주가 급락에 따른 국내 성장주 주가 변동성
3. 삼성전자의 상세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업종 주가 변화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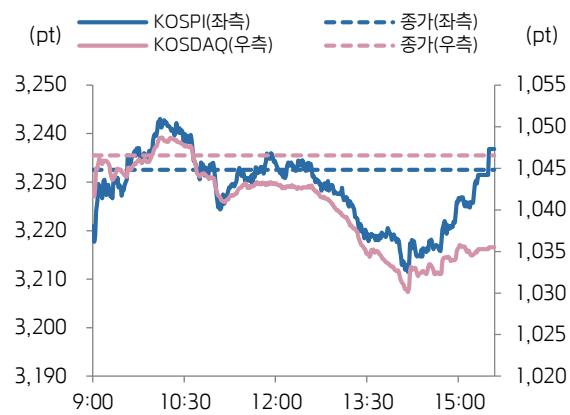
28 일(수) 코스피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미국 대형 테크주들의 시간외 주가 하락에 따른 실적 시즌 경계상, 7 월 FOMC 결과 불확실성 등으로 장 초반부터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 장중에는 중화권 증시 추가 약세로 동반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낙폭을 확대했으나, 장 후반 이후 중화권 증시 반등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하며 강보합세로 마감. 반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실현 물량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부진(코스피 +0.1%, 코스닥 -1.0%). 업종별로는 통신(+2.0%), 유통(+0.8%), 보험(+0.8%) 등이 강세, 의료정밀(-2.2%), 섬유의복(-1.4%), 기계(-1.1%)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4,210 억원 순매도, 기관과 개인이 각각 1,369 억원, 4,122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7 월 FOMC 를 미국 증시가 무난히 소화했으나, 이외에도 상하방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번주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중화권 증시 폭락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점,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1,140 원대로 재차 하락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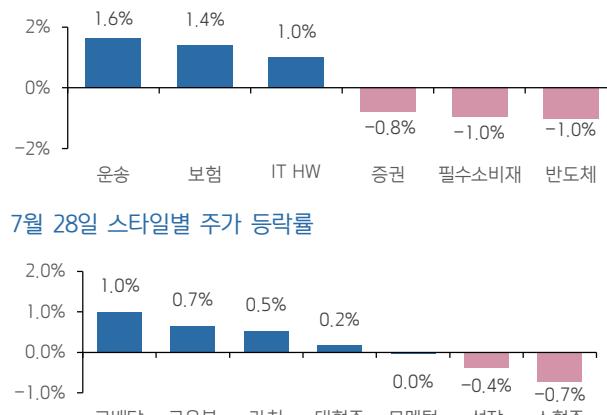
그러나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3 분기와 4 분기 실적 둔화 우려로 5%내외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는 본격적인 실적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도 업종 간, 종목 간 미래 실적 전망 변화에 따라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형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일 전반적인 지수 상단이 제한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7월 28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28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